

6월 취업자 증가 10만명 하회...고용 훈풍 주춤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용 훈풍'이 주춤해지는 모습이다. 제조업 일자리의 증가 폭이 둔화하고, 청년층의 '쉬었음'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불안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여전히 양호한 상태라는 점에서 고용시장의 '다운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조업 취업자 둔화세...반도체 중심 회복에 전망도 불투명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9만6천명 늘었다. 지난 5월 8만명에 이어 2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하회했다.

그간의 견조한 고용 흐름에서 벗어나, 둔화 구간에 접어드는 시그널이 아나나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더딘 제조업 회복세와 건설 불황, 내수 부진 등이 일자리 시장을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4월 10만명 증가했지만 이후 5월 3만8천명, 6월 6천명으로 증가 폭이 점차 줄고 있다.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12월부터 취업자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작년 내내 이어진 취업자 감소 폭을

제조업 취업자 둔화·청년층 쉬었음 증가 등 적신호 속속 건설업·내수 부진도 영향...7월 고용 증가폭 확대 예상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수치다.

향후 고용 전망도 밝지는 않다. 제조업 생산이 3월 33% 줄었다가 4월 27% 플러스로 반전했지만, 5월에는 1.1% 감소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나 조선 등 고용 창출력이 높은 전통적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력이 낮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이뤄지면서 일자리 시장의 운기확산이 더디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내수 부진도 영향...청년층 '쉬었음' 증가

건설업 취업자 또한 5월 4만7천명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6만6천명 줄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모두 감소하면서 건설업 부진을 반영했다.

5월 건설 기성은 전월보다 4.6% 감소했다. 미래 건설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건설수주도 29.9% 줄었다.

내수에 영향을 받는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역시 지난달 5만1천명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청년 취업 부진 흐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14만9천명 감소해 20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감소 폭 역시 5월(17만3천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을 웃돌았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지난달 -0.4%포인트(p) 줄며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쉬었음은 4만명 증가해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작년 7월(4만명) 이후 최대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유지...7월

증가폭 확대 예상"

다만 최근 흐름과는 별개로 전반적인 고용의 '비율 지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고, 실업률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취업자 수 둔화 흐름 역시 작년의 기저효과와 폭우, 폭염 등 기상 요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일시적 부침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뚜렷한 만큼, 궁극적으로는 고용과 내수까지 온기가 전달돼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초복 맞이 '목날 싸늘이' 행사...홈플러스가 초복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생닭과 장어, 한우 등 각종 원기 회복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목날 싸늘이'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목날 싸늘이' 행사 상품을 소개하는 모습. <홈플러스제공>

현대차·기아 내비게이션 '도로·지하도 침수 정보' 알린다

과기정통부·환경부와 '내비게이션 고도화' 협약

현대차·기아가 정부와 손잡고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침수 상황 등 실시간 홍수 경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대차·기아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와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미래차플랫폼) 본부 사

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협약과 맞물려 지난 4월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한 실시간 홍수경보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침수 통제 정보 알람에 더해 실시간 홍수 경보와 관련된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위험 구간 및 댐 방류에 따른 위험 안내 정보를 추가했다.

차량이 침수 경보 지역 근처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 알람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해당 구간을 우회하거나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늦추는 등 대응할 수 있다고 현대차·기아는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가입된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차량에 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없이 적용된다.

이번 내비게이션 기능 고도화는 민·관 상호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한 성과라고 현대차·기아는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NIA는 지난 1월부터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카카오 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등 6개 내비게이션 기업과 서비스 적용을 위해 협력해 왔다.

/연합뉴스

'급발진' 신고자 57%가 50대 이하

교통안전공단 10년간 통계...전문가 "고령자만의 문제 아냐"

지난 10년간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절반 이상은 50대 이하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이다.

이 중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36건이다.

이들 사례를 신고자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고, 50대가 108건(27.3%)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자가 40대인 사례도 80건(20.2%)이었다.

이어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3건(0.8%)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의 이유로 들어 신고한 사례(43.2%)보다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56.8%)가 더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마라자동차학부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며 "이번 시정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스안전공 광주본부, 집중호우 대비 도시철도 건설현장 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는 10일 "전날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점검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6공구 현장 내 노출배관 및 이설작업 중인 배관을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해양에너지 합동으로 진행됐다.

집중호우가 지속되면 건설현장 지면이 불안정해지며 토사 붕괴 위험 및 노출배관 손상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출배관 손상 방지조치 및 비탈림, 휨상태 여부 ▲침



하 및 붕괴방지조치 설치와 상태 점검 ▲현장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유무 ▲가스누출경보기 및 긴급차단밸브 ▲소화기 및 인화성, 위험물 보관 상태 등을 집중 확인했다.

광주광역시 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에 대비해 굴착공사현장, LPG충전소 등 가스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